

News

10월 발행 주식·회사채 8조8천억...전월比 49.0% ↓

데일리안

올해 10월 중 기업이 발행한 주식과 회사채 규모는 8조7857억원으로 전월 대비 49.0% 감소
기업공개가 3985억원으로 31.7% 감소, 유상증자는 890억원으로 50.4% 감소

금융당국 칼 빼 들었다...특판 예금 절판 촉각(종합)

아이뉴스24

은행이 시중의 자금을 흡수해 2금융권이 자금조달 애로사항을 겪어 금융당국이 은행 쏠림 차단에 나선
밀착 모니터링과 함께 시장 교란 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

뱅크샐러드, '주택담보대출 비교' 서비스 출시

세계일보

뱅크샐러드, 마이데이터 기반의 '주택담보대출 비교' 서비스 출시 예정
자체 구축한 상품 추천 알고리즘을 적용해 개인 고객에게 최적화된 주택담보대출 금리 및 대출 가능 상품을 제공

11번째 금융지주 꿈꾸는 수협, 내년 자산운용사 인수한다

이데일리

9월 7500억 규모 예보에 국채로 공적자금 상환, 단위수협 등 운영자금 11조로 지주사 설립 여력 충분
우선 컨설팅사를 선정해 2~3개월 정도 컨설팅을 받고, 내년 6월 이후 자산운용사 인수 추진

KB생명-푸르덴셜생명, 합병 인가 획득

뉴시스

KB생명보험과 푸르덴셜생명보험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양사 합병에 대한 인가 승인을 받음
내년 1월 KB생명보험의 정통성과 푸르덴셜생명보험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계승한 KB라이프생명이 탄생

메리츠화재, 10년만에 퇴직연금 재진입...업계 반발 이유는

뉴시스

메리츠화재가 10년만에 퇴직연금 시장에 진입한 것과 관련, 편법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옴
퇴직연금 `비사업자'는 운용상품 금리를 공시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이미 공시된 사업자의 이율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 고객을 유인한다는 지적

자금시장 경색 국면 장기화... 증권사들 단기차입금 한도 잇단 확대

세계일보

'레고랜드 사태' 이후 10월부터 두 달 동안 5개의 증권사가 금융기관 차입 및 기업어음(CP) 등 단기차입금 한도를 늘리겠다고 공시
증권사들이 단기차입금 한도를 올린 것은 2021년 이후 1년 만, 유동성 대비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

침체에 '빅테크 패리기' 수위 조절... 中, 애플그룹 벌금 부과로 끝날 듯

서울경제

로이터통신, 중국 인민은행이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인 애플그룹에 대한 조사 결과 벌금 부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보도
애플그룹이 오래 기다려온 금융지주회사 면허를 취득하고 다시 성장을 추진하며 무산됐던 기업공개를 부활시키는 길을 닦도록 도울 것으로 예상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